

피겨 선수처럼 부드럽고 날렵하게 질주... “역시 날쌔돌이”

자동차 시승기

아우디 R8 V10

‘익스피리언스 데이’ 개최
빗길주행에도 안정적인 주행
바닥에 달라붙는 차체 인상적

아우디는 독일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들과 함께 ‘독3사’로 불려왔다. 그만큼 성능과 품질이 높은 차량을 만들어온 덕분이다. ‘디젤 게이트’로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들어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다시 명성을 되찾고 있는 중이다.

독3사에 복귀할 마지막 열쇠는 고성능이다. 아우디 역시 레이싱 경험을 담은 고성능 브랜드 RS로 인기를 얻었지만, 국내에서 만큼은 아직이다. 올 초 R8 V10을 필두로 SQ8과 RS5 스포트백 등 고성능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며 다시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우디 익스피리언스 데이는 이런 아우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아우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직접 체험해보는 게 가장 좋다. 제프



R8 V10이 달리는 모습.



다양한 코스를 통과하고 있는 RS Q8.

/아우디코리아

매너링 아우디 코리아 사장의 말이다.

인제 스피디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선 R8 V10을 타고 서킷을 달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고출력이 무려 610마력, 레이싱카와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진짜 고성능차다.

폭우가 내린 탓에 R8의 진정한 힘을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개인상적이다. 특히 낮이가 심한 서킷에서 비가 내리는 깊은 헤어핀 구간을 돌아나가면서도 바닥에 달라붙는 차체를 느꼈다.

독일 현지 인스트럭터는 빗길에서도 마치 피겨스케이팅을 타는 듯 R8을 돌렸다. 분명 미끄러질만했지만 아

니었다. 콰트로 시스템 덕분이다. 마치 취권을 하는 듯, 흔들흔들 정확하게 모든 구간을 빠져나갔다. RS6 아반트와 RS 7스포트백도 R8에 뒤지지 않는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다.

RS Q8은 아우디 고객들에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모델이다.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형제 모델로, 활용성과 고성능 모두를 충족하는 플래그십 대형 SUV다. 서킷 주행 대신 다양한 코스를 체험하며 성능을 직접 느껴볼 수 있었다. 최고출력이 600마력, 최대토크가 81.58에 달해 가속력이 엄청나다. 그러면서도 제동 성능 역시 수준급이라 확실하게 가고 지체 없이 설 수 있다.

2.5톤에 달하는 무게로 슬러림 코스

도 안정적으로 빠져나갔다. 다이나믹 모드로 차체를 낮추면 더 빠릿해진다.

비밀은 뒷바퀴에 있다. 조향에 따라 최대 5도까지 움직여주는 덕분에 쉽게 코너링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이는 좁은 길에서 훨씬 큰 힘을 발휘하는데, 전장이 훨씬 짧은 A5보다도 좁은 코스를 더 쉽게 빠져나갔다.

제프 매너링 사장은 이번 행사를 퍼포먼스와 지속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아우디의 미래를 보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e-트론 GT를 강조한 것. 아쉽게도 현장 상황 탓에 직접 타보지는 못했다. 다만 RS 경험을 전기차에도 녹여낼 수 있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차·기아

우수 협력사에 포상 이벤트

현대차와 기아는 협력사 대상 ‘찾아가는 포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포상 이벤트’는 신차 개발 및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위해 기여한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하는 이벤트로, 협력사 임직원 편의를 위해 현장에 ‘푸드트럭’을 보내고 임직원 가족을 위한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5월 말 실시된 첫 번째 이벤트에는 제네시스 GV70의 초기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한 ▲일지테크 ▲진원 등 두 곳의 협력사가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일지테크’는 GV70에 적용되는 후석 램프 고정용 차체 판별 등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진원’은 GV70의 루프랙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두 회사 모두 GV70 출시 초기 생산 부품 관련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GV70의 우수한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

현대차·기아는 GV70을 비롯해 K8, 아이오닉 5, EV6 등 현대차와 기아의 신차 개발 및 품질에 기여한 총 14곳의 우수 협력사를 올해 추가로 선정해 ‘찾아가는 포상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LGU+ ‘U+스마트 드론’

‘AI 화재감지’ 첫 국제 공인

LG유플러스는 U+스마트드론을 통한 ‘인공지능(AI) 화재감지’ 서비스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방재시험연구원’의 검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드론이 화재를 찾아내는 기기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스마트드론은 기체에 이동통신 및 원격제어 기능을 탑재해 비가시권 원격관제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AI 화재감지’는 여기에 엣지(Edge) 기반 AI 영상 분석 엔진과 열화상 카메라가 더해진 임무형 드론 서비스다. 원거리 AI 화재감지 기술로 불꽃과 연기를 먼저 감지하고, 객체 플리커링(Flickering) 판별 기술을 통해 정확도를 높인다. 이어 열화상 카메라의 실시간 온도 스캔 기술로 실 온도를 측정해 스스로 화재 여부를 판단한다. 영상 감지에만 의존하던 기존 서비스 대비 오염률이 대폭 감소돼, 99.9% 이상에 달하는 높은 화재 검출률을 보인다. /채윤정 AI 전문가

‘ESG 경영’ 인정받은 SKT, 2000억 조달

싱가포르 DBS그룹 ESG 연계 저금리 대출

SK텔레콤이 세계적 금융기관으로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 기업 우대 대출을 받아 온실가스 저감 노력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노력 등 ESG 경영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SK텔레콤은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그룹의 ESG 경영 연계 기업대출(ESG-linked loan)을 통해 3년 만기 자금 2000억원을 조달했다고 2일 밝혔다.

SKT는 국내 1위 통신사로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최상위권 신용등급(AAA)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상호 합의한 ESG 성과를 통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계약은 환경·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SKT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외에도 ESG 성과가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T는 이번 계약으로 통상적인 회사채 발행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 기업의 높은 ESG 성과가 우대금리 적용 등 경영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했다. ESG 채권 발행 외에 ESG 경영 연계 기업대출 등 다양한 녹색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최근 글로벌 자금시장에서는 ESG 우수기업들에 대한 투자 및 자금 제공에 유리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

DBS그룹의 경우, SKT 외에도 글

로벌 통신사인 싱텔과 싱가포르 최대 부동산 기업 CDL 등 산업별 선도기업에 ESG 성과와 창출과 연계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SKT는 DBS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차입금을 친환경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기업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SKT는 3G와 LTE 장비 통합·업그레이드로 약 53%의 전력 사용량 절감 효과를 내는 ‘싱글랜 기술’을 적용해 망 구축 확대에 따른 전력 증가 규모를 최소화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인증에 관한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기반의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채윤정 AI 전문가 echo@

기아, 품격의 ‘더 뉴 K9’ 사전계약 시작

첨단 시스템, 승차감 등 돋보여
새 로고 부착... 5694만원 부터

기아가 3년만에 상품성을 개선해 선보인 K9의 사전계약에 나선다.

기아는 이달 출시 예정인 ‘더 뉴 K9’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3일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9은 K8과 함께 현대차 그랜저, 제네시스와 형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 더 뉴 K9은 2018년 4월 완전 변경된 2세대 K9을 출시한 지 3년 만에 선보이는 모델로, 기아의 신규 로고를 부착했다. 이번 K9은 ▲최상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운전자 차량과 교감할 수 있는 최첨단 인포테

인먼트 시스템 ▲럭셔리 대형 세단에 걸맞은 정숙하고 안정적인 승차감 ▲품격있고 모던한 디자인 등으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전면은 크기와 너비를 대폭 키운 라디에이터 그릴에 빛이 반사되는 듯한 V형상의 크롬 패턴을 적용했다. 헤드램프는 가로로 확장해 첨단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옆면은 균형잡힌 실루엣과 불륨감 있는 캐릭터 라인으로 중후한 느낌을 살렸고, 뒷부분은 세로형의 램프 그래픽으로 헤드램프의 그래픽과 통일감을 줬다. 넓은 하단 범퍼로 안정감을 주고자 했으며, 번호판을 범퍼로 이동시키고 트림링 부착을 없애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했다.

더 뉴 K9의 사전계약은 3.3터보 가



기아 더 뉴 K9.

솔린과 3.8가솔린 총 2개 모델로 진행하며, 기존 모델별로 달랐던 트림 체계를 2개(플래티늄, 마스터즈)로 단순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플래티늄 트림은 ▲14.5인치 내비게이션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지문 인증 시스템 등 하이테크 사양을 중심으로, 마스터즈 트림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에르고 모션 시트 등 콤포트 사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3.3 터보 가솔린 플래티늄 6342만원, 마스터즈 7608만원이며, 3.8 가솔린의 경우 플래티늄 5694만원, 마스터즈 7137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혜택 가족·친구 등 4명과 공유 가능

네이버의 멤버십 프로그램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한층 더 강해진다. 멤버십 회원에게 최대 5% 적립 혜택을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혜택을 가족이나 지인(본인 포함 4명)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With 패밀리’가 8일 출시될 예정이다.

‘With 패밀리’는 최대 3명까지 내 멤버십 구성원으로 추가해 적립 혜택과 디지털 콘텐츠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기능으로 출시되는 만큼, ‘멤버십 My 페이지’에서 간단히 설정해 활용할 수 있다. 구성원은 멤버십 가입자 본인과 동일한 ‘최대 5%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채윤정 AI 전문가